

# 민주 “세계수영대회·한전공대 전폭 지원…5·18 망언 엄단”

### 지도부 광주·나주서 예산정책협의회…지역 핵심사업 논의 이해찬 대표 “광주, 일자리 선도모델…수영대회 北 참가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 5·18 망언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약속했다. 광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개최되는 수영 선수권대회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남에서는 한전공대와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등이 주요 언급됐다.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사옥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새로운 전반기 전남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핵심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 대표, 박주선·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석 정책위의장, 유호준 예결위간사 등 당 핵심 지도부와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시장·군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 혁신도시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새전남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사업으로 ▲대형 랜드마크 연구소 설립과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면역치료연구원 및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해양치유단지 개발과 크루즈 관광 기반조성 등을 건의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타 조속 통과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총사업비 승인 ▲에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조속 추진(압해-화원-화태-백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타 조기 통과 등 30건을 꼽았다.

이어 오후 지도부는 광주시정 중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과 '2019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과 2020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세계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규범법 개정 ▲군 공항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CT연구원 설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역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이 중앙부처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지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광주도시철도 2호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등 20건 3190억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원의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해준 민주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맨 오른쪽)가 12일 이용섭 광주시장 등과 함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찾아 경기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현안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를 선도모델로 구미·포항·통영 등 지역에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흐름이 있어 광주가 그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7월 열리는 광주수영대회에 북한 참가를 전향적으로 지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전공대가 에너지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지원하겠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배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서삼석 ‘전남 새100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지난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전남 새100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3·1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및 범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을 맞아 한반도 통일운동을 본격화하고 지방정부와 당원이 함께 하는 기념사업을 활발히 해 2020 총선 필승의 토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출범식 뒤 동부권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등을 실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최경환 ‘제3지대 위한 DJ 포럼’ 구성

### 평화당, 신안서 토론회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 과 호남 및 수도권 지역위원장 10여명은 지난 13일과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신안 하의도에서 토론회를 갖고 '제3지대를 위한 DJ포럼' 구성을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5일 이전에 발기인 모집을 마치고 포럼을 정식 발족하는 한편 전국 지역위원장 1/3을 이상을 참여 시키기로 했다. 포럼의 노선은 평화·민생·실용에 방점이 찍혀있는 김대중 노선



으로 정하고 제3지대에서의 세력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노선에 민주평화당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DJ 포럼'이 제3지대론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의원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과 호남의 자긍심으로 제3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靑, 이미지선 주식논란 속 임명 예고

### 청문보고서 불발시 재송부 요청 방침...야당 원내 투쟁 의지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지선 헌법재판관 거취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공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현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계제로'의 정국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당장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국회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데 이어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이 결국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려 보고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이콧보다는 원내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되더라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막막’한 바른미래

### 孫, 이번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사퇴 요구 정면 돌파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하태대 최고위원은 14일부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예고했다.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의 최고위원들은 4·3 보선 이후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

원회의도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전체 지역위원장의 절반을 넘긴 숫자만큼 받을 것”이라며 “손 대표는 당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없이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

서 “이번 주말부터 당 내부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끼리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원들도 알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사실상 손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최고위원 가운데 바른정당계 3명(하태대·이준석·권은희)과 해외 출장 중인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을 제외하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청년 최고위원 등 3명뿐이다.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현재 공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번 주 내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해 최고위원이 9명으로 늘어나면 3명이 불참해도 최고위원은 6명으로 정상 가동될 수 있다. 손 대표 측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각각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별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만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견,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